



'디펜딩 챔피언' KIA 선수들은 연패와 연승과 상관없이 팀워크를 바탕으로 밝은 분위기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사진은 경기 후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KIA의 힘 '유쾌한 동행'



헥터가 자신이 직접 제작한 티셔츠를 입고 훈련을 하러 나가고 있다.

덕아웃은 성적 상관없이 항상 밝고 감독은 '내 탓' 하며 선수들 격려 '분위기 메이커' 헥터, 강도높은 훈련에 항의하며 동료들에 셔츠 선물



'유쾌한 동행'이 KIA 타이거즈의 숨은 전력이자. KIA는 '디펜딩 챔피언'의 자격으로 2018시즌을 맞이했다. 많은 기대 속에서 시작한 새 시즌이지만 초반에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막내 kt 위즈의 뒷심에 밀려 개막전 승리를 내주기도 했고, 6개의 홈런으로 17점을 뽑아내던 화력기 하루 만에 식어 영봉패를 당하기도 했다. 막강 1·2·3선발을 내세우고도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3연패에 빠지기도 했다. 기복 많은 초반이지만 덕아웃 분위기는 한결같다. 3연패 뒤 시즌 첫 스윙과 함께 4연승을 기록한 지난 8일, 결승타 주인공이었던 김선빈은 "우리 팀은 변화가 없다"며 웃었다. 연패 상황에서도 또 연승 상황에서도 덕아웃 분위기는 '한결같다'는 게 김선빈의 이야기였다. KIA 덕아웃에서는 전

날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밝은 모습으로 그날그날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말을 아끼며 '내 탓이오'를 외치는 사령탑의 배려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을 한다. 좋은 공격으로 승리를 거둔 날은 "열심히 노력해준 코치들과 선수들의 덕"이라고 공을 돌리는 김 감독은 지난 주말 연승 뒤에는 "선수들이 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범호의 부상 이후 "오더에서 빠졌어야 했는데 내 탓인 것 같다"며 안타까워한 김 감독은 양현종 선발 경기에서 나온 고의4구 지시에 대해서는 "원래 에이스에게는 고의 4구를 안 내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3볼에서) 조심스럽게 상대해야하는 데 스트레스받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에이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가 열린 지난 7일 3-0으로 앞선 3회초에서 나온 상황이었다. 1사에서 양현종이 이정후와 임병욱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다. 이어 김하성의 좌익수 플라이가 나오면서 2사 2·3루. 타석에 박병호가 섰고, 양현종은 볼 3개를 연달아 던지며 위기에 몰렸다. 그

러자 김 감독이 자동 고의 4구 사인을 내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리고 초이스의 2루 땅볼로 3회는 실점 없이 마무리됐다. 권위 대신 동행을 이야기하는 사령탑과 든든한 팀워크로 묶인 선수들 덕분에 KIA 덕아웃 분위기는 김선빈의 이야기처럼 한결같다. 외국인 선수들도 '유쾌한 동행'의 한 축이다. 얼마 전 헥터 때문에 라커룸이 웃음바다가 됐다. 헥터가 직접 제작해서 선수단에 돌린 티셔츠 때문이다. 티셔츠에는 배요한 트레이닝 코치의 사진과 'HOW LONG'이라는 글자가 인쇄됐다. 사연은 이렇다. 배 코치는 강도 높은 체력 훈련으로 선수들 사이에 명성이 자자하다. 이 때문에 훈련 시간이면 "언제까지 워밍업을 해야 하느냐"는 헥터의 불만소리를 들을 수 있다. 헥터가 입버릇처럼 배 코치에게 하는 말이 'HOW LONG'이다. 헥터는 항의(?) 차원에서 애교 넘치는 티셔츠를 제작해 자신의 선발날 같이 입어주라며 선수들에게 선물했다. 동료들은 헥터의 부대리도 그의 선발날 티셔츠를 입고 라커룸을 활보하며 '유쾌한 동행'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5억원

박항서 베트남 축구팀 AFC 준우승 포상금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준우승 신화를 만든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에 쏟아진 포상금이 25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U-23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받게 될 보너스가 511억동(약 25억5000만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포상 규모를 기록했다고 일간 전짜가 10일 보도했다. 베트남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올림픽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과 단체가 앞다퉈 포상금을 쾌척한 덕분이다. 포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1인당 8억5000만~18억동(약 4250만~9000만원)씩 주어진다. 이외에도 12개 기업이나 단체가 축구대표팀에 자동차, TV, 스마트폰, 손목시계 등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고급 휴양지 무료 이용권, 보험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업체나 기관도 17개로 집계됐다. 현지 과세당국은 대표팀이 받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기업 마케팅을 위해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더 많은 이닝 중요"

류현진 오늘 등판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두 번째 등판을 앞두고 "더 많은 이닝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차례나 등판 일정이 변경되는 '5선발 설움'을 겪은 류현진에게 11일(이하 한국 시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 등판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류현진은 10일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선발 투수들에게는 등판일이 언제인지 미리 아는 게 편하다. 선발 투수들은 휴식일 동안 일정한 훈련 스케줄을 소화한다"고 불규칙한 등판 일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신체적으로는 조금 어렵긴 하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정신적으로는 준비돼 있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정규시즌 초반에는 내 몸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몸 상태가 좋다. 내겐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류현진은 지난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올해 정규시즌 첫 경기를 치러 3.2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부진했다. /연합뉴스

"스웨덴 잡으면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월드컵 대표팀 주장 기성용 "조별리그 첫 경기 중요"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29·스완지시티)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상대인 스웨덴전이 가장 중요한 경기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용은 9일(현지시간) FIFA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우리는 쉽지 않은 조에 속해 있다"면서도 "스웨덴, 멕시코, 독일이(우리보다) 더 낫다고 하지만, 축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특히, 월드컵에서는 그렇다. 가끔은 우리도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어 "스웨덴과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만약 승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다"며 16강 진출을 기대했다. 기성용은 손흥민(26·토트넘)에 대해 "우리 팀의 핵심이자, 상대에 위협적인 선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공격은 상당 부분 그에게 의지하고 있고, 그는 토트넘에서도 스트라이커와 원어로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며 "희망컨대 손흥민이 많은 골을 넣기를 바



국제축구연맹 홈페이지에 실린 기성용(오른쪽)과 손흥민. <FIFA 홈페이지 제공>

란다. 상대 팀들은 손흥민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축구가 사상 처음 4강에 올랐던 2002년 한일 월드컵도 떠올렸다. 기성용은 "모든 경기장과 거리가 붉은 티셔츠로 넘쳐났다. 나는 당시 호주에 있어서 그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지만, TV를 통해 봤다"며 "한국 축구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을 상대로 플레이하는 모습은 정말 믿을 수 없었다. 놀라움 그 자체였다"고 돌아봤다. 2002년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는 선제골을 내준 뒤 역전승을 일군 이탈리아와 16강전을 들었다. 자신의 '히어로'로는 홍명보를 꼽았다. /연합뉴스

태극낭자 LPGA 시즌 4승 도전

롯데 챔피언십 내일 하와이서 개막...박인비·전인지·김세영·지은희 등 총출동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한국 자매 군단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열기를 식히고 하와이에서 올해 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LPGA투어는 12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하와이주 카푸레이의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에서 롯데 챔피언십을 개최한다. 8년 만에 스윙 교정을 완성한 맏언니 지은희와 부활한 '여제' 박인비(사진)가 선봉에 선다. 두 사람은 앞서 열린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의 아쉬움을 이 대회 우승으로 씻겠다는 복안이다. 기아클래식 챔피언 지은희는 이어진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첫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첫 탈락을 보약 삼아 충분한 휴식을 취한 지은희는 일찌감치 이 대회를 준비했다. 박인비는 1박2일 연장전 끝에 쓴맛을 봤다. 박인비는 2015년 이 대회에서도 연장전 패배의 아쉬움을 맛본 바 있어 각오가 남다르다. 박인비가 이 대회 정상에 오르려면 선두를 달리는 삼금영, 평균폎타



수에서 2위와 격차를 벌릴 수 있다.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자 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에 내준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 1위로 넘겨받는다. 이 대회와 인연이 깊은 김세영과 전인지도 우승후보로 주목받는다. 김세영은 2015년 연장전에서 극적인 이글샷으로 박인비를 따돌리고 생애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신인왕 경쟁에 쐬기

를 박았다. 이듬해에도 7위에 오르는 등 코스와 공합이 맞아 침체를 벗어날 기회다. 전인지는 작년 이 대회에서 최종 라운드 불꽃타로 준우승을 차지한 좋은 추억이 있다. 이번 시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유소연과 박성현도 반전을 노린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를 석권한 '핫시츠' 이정은은 올해 들어 두 번째 미국 원정에 나선다. 지난해 한국 상금왕 자격으로 ANA 인스퍼레이션에 출전해 공동 16위라는 성적을 거둔 이정은은 지난해 KLPGA투어 롯데랜타 여자오픈 우승자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롯데 골프단 소속 김지현과 하민승, 이소영은 스폰서 초청으로 LPGA투어를 경험한다. 세계랭킹 1위 평산산(중국)과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크리스티 커(미국), 세계랭킹 6위 에리아 주타누간(태국), HSBC 월드챔피언십을 제패한 교포 미셀 위(한국)를 위성미) 등이 강력한 우승 경쟁자다. /연합뉴스